

2026.09.06.(주일) 열왕기하 23:36-24:7 「즐거하지 아니하시니라」 김양재목사님(2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6절부터 24장 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3:36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37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1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3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거하지 아니하시니라
5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하기를 즐거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서 제일 급했던 날,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이 생각납니까? 수술실 문 앞에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부도 직전에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했던 그 약속, 지금 어디 있나요?

지난주에는 유다가 애굽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형편을 따라 섬기다가 돌아서는 왕과 함께 새로운 이름이 등장해요. 그 유명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제 열왕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즐거하지 아니하시니라”예요. 이상하죠? 무엇을 즐거하지 아니하신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문장이 바로 이 말로 끝납니다. 그 답을 찾아가며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애굽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즐거하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는

1. 우리는 돌아서서 배반합니다(23장36절-24장1절)

우리는 돌아서서 배반하기 때문이에요. 23장 36절, 37절입니다.

23:36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37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_왕하 23:36-37

이제 여호야김이 스물다섯에 왕이 되어 11년을 다스립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왕으로 세우고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고쳐줬어요. **출발부터 애굽의 손에 붙들린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판정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동생 여호아하스와 같이 똑같이 악한 조상들의 길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백성들의 선택**’으로 세워진 동생이나 ‘**애굽 왕의 선택**’으로 세워진 형이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가는 길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 줄 아는 사람은 안 세워요. 아꼈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은 여호야김을 왕좌에 앉혀놓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항상 독재를 하는 사람은, 밑에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세우기를 즐겨워해요. 왜냐하면, 똑똑하면 자기 자리를 또 빼앗을까 봐. 그렇게 애굽이 세운 여호야김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24장 1절이에요.

24:1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_왕하 24:1

아까 말씀드린 새 이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이제 앗수르를 무너뜨리고 새 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이 유다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제1차 바벨론 침공’인데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때 바벨론은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까지도 다 탈취해 갔다고 하죠.

지금 이제 바벨론 시대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야김이) 아무리 친애굽이지만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3년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히스기야 때부터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말씀에 ‘바벨론에 잡혀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 같은 성군도 그게 싫어요, 잡혀간다는 말이. 인정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앗수르 싸움에 앗수르를 돕겠다는 애굽을 막았잖아요, 요시야가.

그런데 결국 여호야김도 바벨론 3년 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대요. 왜 그러죠? 바벨론을 3년 섬기다 보니까 그래도 애굽이 아직은 힘이 있는 거예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사력을 다해서 잠시 전쟁에서 소강상태로 지켜냈어요, 애굽을.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굽 역시 달

라’ 하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딱 붙었어요. 그러니 바벨론 왕이 막 노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약한 유다 하나 치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겠어요.

유다는 근본적으로 신흥 강국 바벨론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을 노예를 했어도 애굽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여전히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 조선이 조공을 바쳤잖아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외국, 공부 못해도 외국. 뭐 이런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을 막아놓을 수 있어요. **막힌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서 가려고 하면 나 때문에 그 길 되는 사람이 정말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23장 32절에 여호아하스의 죄로 바로 느고가 지금 쓰이는 거고, 37절 여호야김의 죄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쓰이는 거예요. 막힌 길을 찾고 이제 뚫고 가려고 하니까 막아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여기서 “돌아서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예, ‘슈브’ 동사예요. 돌아섰어요. 요시야를 두고도 ‘슈브’를 썼어요. 그런데 이 ‘돌이키다’와 ‘돌아서다’가 똑같은 슈브 동사인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왕하 23:26).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시야는 여호와께로 **돌이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돌아서서** 또 배반했어요. 이게 다 똑같이 슈브 동사인데, ★같은 ‘돌이킴’인데 방향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개’지만, 말씀에서 돌아서면 ‘배반’이라 그래요. 회개와 배반은 백지장 차이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결단했다는 사실이 아니예요. ‘누구에게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51대 49, 52대 48로 이제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거룩의 여정은 이쪽으로 가지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51대 49’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쪽에 거룩한 순례길을 바꿔 탄 소속이 달라진 사람인데.

우리는 요시야가 행위가 완전해서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방향이 너무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는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면서도 이 애굽의 느고를 막아서 가지고 아주 망하는 단초를 제공했잖아요. 요시야 때문에 망한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매국노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옳고 그름은 그 하나, 한 가지 행위, 이것 때문에 ‘죽이자! 죽이자!’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애굽의 느고를 막아서서 망하는 단초를 제공했을뿐더러 또 관행을 좇아서 부인도 여러 명이네요, 요시야가. 창조 질서는 일부일처인데, 그죠? (케냐 목회자 세미

나를 가 보니까 부인이 여럿인 목사가 막 은혜를 받으면서 와서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럿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왕권을 노리고, 시기, 질투를 하니까 악을 행하기 쉽지 않았나 싶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 더하기 1은 2’처럼 이해가 쉬우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떤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개에 쓰라고 주신 돌이킴을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끝없이 배반에 갖다 쓰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모르는 만큼, 모르는 만큼 계속 배반에 써요. 그래도 방향이 이쪽인 사람은 그래도 인도해 가는데, 이쪽(반대쪽)인 사람은 아무리 흥내를 내도 끝까지 안 된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섬긴 것은, 그러니까 3년 동안 섬긴 건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설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은 소속이 이쪽이 아니에요. 왕이니까 끝까지 이쪽이에요. 애굽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돌아섰어요. 섬길 때도 계산하고, 돌아설 때도 계산하고. ★주인만 바뀌었지 말씀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애굽을 불드는 순간 말씀에는 등을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서 배반하는 건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3년, 이게 우리 신앙의 주기 아닙니까? 놀릴 때는 섬겨요. 새벽마다 나오고 서원까지 해요. 그런데 형편이 풀리는 기미가 이렇게 딱 보이면 돌아섭니다. 병이 나으니까 예배가 뒷전이 돼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큐티가 밀립니다. 그 사람, 남편과 아내가 돌아오니까 기도가 멀어요. 은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딱 돌아선 거예요.

금요일 큐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16장 12절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늘 우리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반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건져주신 은혜를 잊는 자리에서 돌아섬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억을 잃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서도 다시 애굽을 찾습니다.

힘들 때 “아이고, 살려만 주신다면~” 이거는 유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무교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조금 먹고살 만하니까 이제 애굽이 나를 살려줄 구원자인 양 다시 (애굽을) 붙들어요. 애굽은 장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돈과 사람과 권력이 다 ‘나의 애굽’이에요.

이번 주 나눔에 “어떤 목사님이 주례사에서 ‘황 씨는 김 씨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황금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맞아요. 우

리는 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 바벨론 무슨 차이가 있나?** 여러분 좀 들어야 돼요. 우리가 400년 종 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힘들어지면 생각나는 애굽’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너무나 힘든 애굽 친절에서 탈출하려고 (애굽보다) 더 강자같이 보이는 바벨론 시덥으로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더 힘든 사로잡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내 몸에 400년 동안 익은 게 있는 거예요. 몸에 익은 게 있어서 환상을 가지고 다시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친절은 뭐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힘들기만 하지 이것도 없어~~ 촌스러워~ 문화가 없어’ 이러면서, ‘애굽은 8천 년의 문화가 있잖아?’ 하면서. 애굽은 정말 구속사의 그걸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약하게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것은 살아온 풍습과 연관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익숙한 육의 애굽이 있고, 훈련받아야 하는 영적인 바벨론이 있어요.**

내가 학창 시절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도 다니던 여학교, 덕수궁 돌담길을 가면 너무나 그냥 막 향수에 젖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도. 또 대학교를 가도 내가 고학을 했는데, 그냥 괜히 과거는 이렇게 자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다닌 학교들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잖아요. ‘내가 저기서 종살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또 남편이 가고 나서도, 아무리 무시를 당했어도, 남편 가고 없으니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내 결혼 생활은 도우미와 기사가 있었다’ 이러면서 애굽의 삶이 또 이제 그림고. 게다가 이제 과부라고 무시하면 ‘내 남편은 원장이었다. 나밖에 몰랐다. 사랑해 줬다.’ 이러면서 애굽의 종 노릇은 쏙 빼고 본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러기로 서니 알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는 과거를 그렇게 찾고, 자랑하고.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종 노릇을 했는데도 그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무시당했어도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만 거기만(그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생에 제가 예전에 가장 결혼하면서 감사한 것이 친절이 망했다는 거예요. 아주 안 그랬으면 저는 100% 1000% 이혼했을 거예요. 제가 코앞에 서울예고가 있는데 내가 걸레질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거기 (서울예고에 강사로) 나갈 수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주 이렇게 우리 친절이 그냥 쏙딱 망해 줘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규례를 지키라’(신 16:12)**고 그러잖아요. 규례! 원칙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마 19:6)**는 하나님의 원칙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을 모르니까 늘 이렇게 배반을 밥 먹듯이 해요, 과거에 살면서.

이제 마약을 이제 정말 그냥 마약의 종 되었던 걸 끊어서 이제 건져내 주었는데 조

금 힘들어지면 다시 구원자인 양 붙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끊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보다 천 배 어려운 것이 동성애이고, 그보다 천 배 어려운 것이 마약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한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웬만한 믿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동성애고 마약이라는 것인데요. 그 어려운 걸 저는 우리들교회에서 청년이 동성애와 마약을 때마다 고백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어요. 중학교 때도 커밍아웃, 고등학교에도 커밍아웃, 대학교 때도 커밍아웃, 직장에서도 커밍아웃. 그래도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드디어 돌아왔다고 이제 고백을 해서 이제 여자친구와 교제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이럴 때 권세가 있으면 믿음과 상관없이 “난 하고 싶은 거 하고 죽겠다” 그게 그들의 지론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이런 거 없어요. 동성애자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마약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조금만 갖춰도 다시 돌아가서 붙들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다 이제 그들이 모든 요직을 다 차지했고, 권세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 쾌락을 합리화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왜 막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해결책일까요? 그런 식구가 우리 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식구가 우리의 바벨론이죠.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바벨론)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이렇게 구속사로 해석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식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약만 끊기’를 원하고 ‘동성애만 끊기’를 원하니까 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 못 살아!’ 하며 이혼하고 자살하고……. 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싫어!”

그러니 ★★★이 짧은 인생에서 바벨론 같은 그 식구에게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을 하다 보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가 말을 걸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

이렇게 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식구 때문에 내가 주님과 그렇게 됐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1+1=2”처럼 “내가 기도했으면 마약에서 돌아오고 동성애에서 돌아오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조두(鳥頭)’라고 불러요. 새 ‘조’ 머리 ‘두’.

■ 적용 질문

Q.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렸지만, 형편이 풀린 뒤 잊거나 미루고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Q. 요즘 내가 죽어라고 말씀보다 더 믿고 붙드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알코올 중독? 동성애? 마약?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예를 들었으니까. 근데 다른 것도 많죠. 그죠?)

Q. 애굽을 붙들면서 예배와 큐티와 기도에서 어떻게 멀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교회들은 이렇게 구속사적인 생각(핑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늘 애굽이 좋아서 돌아서서 배반을 하지만

2. 하나님은 말씀대로 물리치십니다(2-4절)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큐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절입니다.

2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킴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왕하 24:2

유다에 쳐들어온 게 그냥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즉 느부갓네살이 부리는 ‘부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겉으로 보면 배반당한 바벨론 왕이 응징하러 보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른바 ‘2차 바벨론 침공’이에요. 근데 본문 2절 앞에는 그들을 보내신 분이 갈대아, 아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말씀에서 돌아선 유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손이 내 손목을 붙들어도, 그 손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동성애자, 마약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거를 거기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한 걸음 더 갑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부대를 움직여요. ★우리가 돌아선 그 배반의 자리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그런데 온 걸 보세요. 대군이 온 게 아니고 ‘부대들’이 왔어요. 국경을 들락거리며 반복해서 치는 소규모 약탈대들이에요.

심판이 어떻게 옵니까? 뉴스 속보처럼 한 방에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일상이 조금씩 이제 뜯기는 것으로 옵니다. 발이 뜯기고, 마을이 털리고 어제 같던 오늘이 조금씩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상이 흔들릴 때 ‘이게 무슨 죄 때문이지?’ 하고 기복적으로 계산부터 하지 마시고요. ★물을 것은 ‘이 사건이 지금 나를 어떤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가?’ 항상 말씀 때문에 심판이 오고, 말씀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건은 말씀 앞에 내 죄를 보여 주는 것이 결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

게 말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면 큐티책을 펴서 ‘가만! 오늘 말씀이 뭐지?’ 그리고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 큐티 훈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지?’ 그런데 이 침공은 갑자기 온 게 아니예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게 므낫세 때 이미 들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왕하 21:12). 그 말씀이 오늘 움직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 시대를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 없이 보내었으나”(렘 7:25)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그냥 하나님이 보내고 또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다 더 나아가서 ‘부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던 손이 이제 부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갈대아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이거 강조했잖아요. 이 부대를 보내시는 분도 같은 분, 하나님이예요. 근데 유다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끝내 거절하자 그 말씀으로 경고하신 심판이 이제는 ‘부대’로 온 거예요. 부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이에요.

3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왕하 24:3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이 ‘물리치다’ 이 말도 처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왕하 23:27)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물리치겠다!” (지난 주 말씀은) 선언이었고, 오늘은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근데 이게 므낫세 한 사람의 탓이예요? 아니죠. “백성이 그의 꾀를 받아 함께 악을 행하고 그 길을 버리지 않았다”(왕하 21:9)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조상의 죄를 애통해야 되잖아요. 조상(므낫세)이 55년간 임금 노릇을 해서 아주 그냥 요시야의 개혁은 외형적으로만 했어요. 속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제 불가항력이라 유다의 왕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므낫세’는 온 유다의 죄에 붙은 이름이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손가락질할 자리가 아니예요. **므낫세 이름이 쓰인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국제 정세, 나라 정세가 어찌 되었든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이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들으면, “아, 내가 말씀을 듣고 이타적으로 살고 가정을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적용해 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짓밟은 장본인도 바벨론이 아니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만 바벨론을 그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건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여호야김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삶의 결론은 패망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애굽은 너무나도 대단해서 내가 믿으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그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믿지도 않는 애굽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이어서 4절 보세요.

4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왕하 24:4

므낫세가 흘린 그 ‘무죄한 자의 피’. 그러니까 우리 므낫세가 막 이사야를 톱질하면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여호야김도 똑같이 해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전했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붙잡혀 와서 여호야김의 칼에 그냥 죽는 거예요(렘 26:20~23). 그럼 여호야김은 왜 이런 선지자를 죽였겠어요? 말씀이 자기를 찔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끊는 거예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면 (말씀을) 안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씀을 대놓고 죽이지는 않아요. 대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때리고 그래서 싫어서 이제 죽을 지경인데 목장에서는 “아휴, 그 남편을 사랑하세요.” 이러면 이제 그 목자가 딱 싫죠. 내 편이 돼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남편 버리세요!” 이래야지 좋은데. 어휴,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당해서 알잖아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저한테 “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마약, 바벨론으로 여겨라” “아휴, 내가 순종하다가 가면 있잖아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순교자 되는 거지~” 이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내가 딱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고, 나보고 이래라저래라하면 목자가 싫어요. 목장이 싫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싫어요. 부모도 싫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그 말씀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가 싫으면 남편도 싫어요. 끊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끊고 싶으니까 특방도 나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밀어냈다고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입을 막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찾아오는데 쥐들이 고양이가 무섭다고 알려줘야지 그냥 그 구멍에다 머리만 박아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 무섭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고양이가 물러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당신 바벨론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판결이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예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섬기라!” 이걸 전했어요. 바벨론이 믿음이 좋아서 섬기라고 했겠습니까?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가 있으라고 하신 거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36장 3절에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시려고 쓰신 말씀**이에요. 그 가정을 살리겠다고. 그런데 그냥 쥐구멍에 머리만 박고 “나는 몰라! 안 봐!” 이제 이러시니까 우리가 막 애통하잖아요? 목장에서 막 애통하고 목자들이 애통하고. 그럼에도 바벨론에 항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요.** 손길만 스쳐도 소름 끼치는 남편과 아내라도. 이 규례는 “이혼하지 말라” 하시면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언약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적용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의지하든, 바벨론 포로가 되든 **“왜 이런 힘들고 싫은 적용을 하며 내가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이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짧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말씀)를 베어서 화로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한 장씩 찢어서 말할 때마다 태워버렸어요(렘 36:23).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쓰게 하셨어요(렘 36:27~28). 예전에 우리 한 집사님의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는 이분이 믿는 사람인데 성경책을 찢어서 화장실에서 화장지로 쓰다가 돌아가셨다는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직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여 다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렘 36:32). 태워도 다시 쓰시고, 또 태워도 다시 쓰시고…… 이렇게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1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주면, 판결대로 행하는 백성이 있고 판결을 어기는 백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갈림길의 끝을 보여 주는 거예요. 참고 참아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오늘 마침내 가장 무서운 문장이 오늘 딱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제목이에요. ‘이게 뭐 ‘즐거 즐겨’ 하니까 이게 나쁜 말은 아닐거야~’ 쥐구멍에 머리만 박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즐거하다”는 기분이나 취향이 아니에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거절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자기 백성을 해치는 쪽에 이 말로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섯 구절이나 “**노(No)!!**”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언약 때문에. 발람의 저주조차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해치는 쪽에서 주님은 “**노(No)!!**”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신명기 29장에서 딱 한 번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가 오늘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신명기 29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저주-경고-하신 거죠.

“19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20 여호와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와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신 29:19).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난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 봐~ 내가 돈이 있는데 어쩔 거야?” 이런 자는 여호와께서 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세요. 원문은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와 같은 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내가 너를 사해주겠노라. 내가 아무리 해도 사해주겠노라” 했는데 한 번, 그러나 네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나는 괜찮아”하면은 이제 드디어 경고했던 말씀이 오늘 열왕기에서 판결이 된 거예요. 그 저주를 집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아니오!” 했던 그 말이 마침내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역본들은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해 뒀어요.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싫어하셨다는 뜻도 아니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문이 닫혔다는 말도 아니예요. 자, 용서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거절한 유다에 내린 심판을 이제는 더 이상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도 말씀을 이제 끝까지 “아니오!” 하니까 하나님도 참다가 드디어 “나도 너희를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왕이니까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유다의 왕으로서 참 아쉬워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이들을 악으로 이끌었던 가장 원흉, 므낫세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회개했어요. 계보에 올라 갔어요. 자,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온 나라, 세계는 행위로 맨날……. 오늘 한 번 잘못된 거를 그냥 수십 년, 수백 년 “나쁜 놈, 나쁜 놈”. 그래서 이 땅이 슬픔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마지막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식구들 막 찾아가고 지금 이 TT 가서 맨날 영접시키잖아요! 영접! 하나님 나라에 등록시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당신이 틀렸다!”는 말을 절대로 못 들어요.

북한의 저 지도자 동지도 틀렸다는 말을 절대로 못 듣는 절대 독재인데도 어떻게 3대를 내려가게 하시죠?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선의

절대 군주인 조선 왕조도 저랬을까?’ 그쵸? 거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독재잖아요. ‘연산군이 저랬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래도 연산군은 종종반정이 일어나서 금세 그거 끝났잖아요. 그쵸? ‘그럼 광해군이 그랬을까?’ 거긴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그 조선 왕조는 약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3대 독재를 하는 무서운 나라(북한)가 딱 위에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똑같은 형제끼리 남한의 기도가 너무너무 절절해져 가지고 그 기도로 도리어 남한을 축복하셨잖아요. 그쵸? 우리가 힘드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이) 너무 축복받으니까 영적으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의 시대가 온 것 같다이거예요. 그렇쵸? 그렇쵸?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 그렇게 사모하던 남한의 교회에 와보고 실망해서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던 때를 그냥 그리워하면서 도로 돌아가고 싶을 지경이라는. 이거는 정말 뼈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이 짧기 때문에. 옛날에 막 그렇게 고문을 해도 그냥 막 그냥 곱사등이를 막 그냥 그냥 막 발을 밟고 지나가도 아무도 배반하지 않았대요.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그러고 다 순교했다잖아요. 한 사람의 배반자가 없었다고요. 힘들면 하나님을 저절로 이렇게 찾더라고요.

적용 질문이에요. 최근 나를 가장 찌른 말씀은 무엇이에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미워하고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뒀어 뒀어 다 그런 거지 뭐 괜찮다고 여기며 미루고 있는 회개는 무엇이에요?

■ 적용 질문

Q. 최근 나를 가장 찌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해 준 사람을 미워하고 피했습니까?

Q.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휴, 뒀어 뒀어~ 다 그런 거지 뭐~” 하는 괜찮다로 여기며 미루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도 때가 돼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극성이야~” 이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내년에 TT는 우리 만 명 나갑시다. 온 교인이 다 나가자고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핑크 목회하는 교회들도 같이 좀 이렇게 동참해 가지고 핑크 트립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년 약속은 지금부터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즐거하지 아니하시리라’ 첫째 우리는 돌아서서 배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3. 내가 원하던 애굽은 끝내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5-7절)

24절 5절 6절이에요.

5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하 24:5-6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게 다예요. 11년간 다스린 왕의 마지막이 이 한 문장이예요. 유다 왕들의 마지막에는 보통 이제 장사 기록이 붙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왕하 23:30) 아들에게는 무덤 문장 자체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마지막을 이렇게 예고했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당하리라”(렘 22:19). 그게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열왕기는 장사도, 애곡도, 무덤도 기록하지 않은 채 침묵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11년 어디로 갔습니까? 그 모든 일은 역대지략으로 넘어갔고요. 이 짧은 기록에 남은 건 두 가지예요. “여호야김은 배반했고, 심판받았다.” 배반했고, 심판받았다. 배반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마지막까지 영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한 단락으로 기록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가만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김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에.

7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라 왕하 24:7

유다가 바벨론에게 뜯기는 동안 애굽은 구하러 오기는커녕 국경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가 어디를 떠올리게 합니까? 솔로몬 시대에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그때 누리던 지경을 떠올리게 하죠. 근데 솔로몬의 영광을 그리던 지도가 이젠 바벨론의 점령 지도가 된 거예요. 말씀을 버린 시대에는 축복의 지도가 남의 나라 지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진작 경고했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사 31:1)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사 31:3). 사람이고 신이 아닌데 사람을 신처럼 붙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다 봤어요. 우리야(선지자)도 애굽에서 잡혀 왔고, 여호아하스도 애굽에서 죽었어요. 여호와김이 도움을 기대할 때 애굽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들이 붙든 애굽은 아무도 구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애굽이 물러났다고 유다가 풀려난 게 아니예요. 회개하지 않은 유다에게는 애굽이 닫힌 자리에 더 큰 제국 바벨론이 들어왔어요. ★의지하던 대상이 무너졌다고 저절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한 마귀 물러가면은 일곱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도 쓰잘 데가 없어요. 어디(애굽)에서 벗어나도 하

나눔이 사랑하시면 또 바벨론 손에 붙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손만 바뀌었지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예요!

여러분 내가 붙든 그 통장과 사람과 실력이 내 죄와 죽음에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붙든 것은 죄와 죽음 앞에서 국경 밖으로 하나도 나오지 못해요. 여호와감을 세워준 애굽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의지해 온 그 애굽도 내 죄와 죽음 앞에서는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애굽을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애굽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도 의지하는 친정이 애굽처럼 잘 살고 있으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기웃거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친정에 의지해서 예수를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나 때문에 애굽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때문에 애굽이 망하게 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가 이게 성경의 지금 스토리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친정 의지해서 이혼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 준 세 장면 끝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우리는 늘 돌아서서 배반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물리치세요.

근데 애굽은 끝내 구하지 못해요.

우리 앞에는 이 판결만 남아요.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판결이 마지막 말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항상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애굽은 구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로마서 3장이 십자가를 설명해요.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_로 3:25-26

요한일서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_요일 1:9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주셔서 사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공의는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자백하는 죄인을 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함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몰라요.

■ 적용 질문

Q.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Q. 내가 믿던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애굽을 찾

아서 삼만리하고 있습니까?

Q.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내가 아직 숨기고(붙들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Q. 여러분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이러시는 분이 목장에서도 계실 거예요. “아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데……” 이런 게 행위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 자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근데 우리 삶은요, 너무 치사스럽고 사소한 것에서 늘 무너지고 이쪽으로 와요.

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기애’인데 형님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술 한잔 하다 장모님도 계셨는데 아내와 다투대요. 근데 벌써 아내가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폭행을 했어요, 아내를.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지으셨네요.) 불과 이틀 전 수요일에 배 때 아내가 녹내장으로 실명이 돼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이 남자들은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이 남자들이 재료가 ‘먼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화나면 짐승이잖아요. 우웬~ 험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를 너무 높게 보지 말아요. 그래서 ‘아, 또 화가 났구나.’ 재료가 좋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화로불에 성경책을 찢어서 계속 불태우는 것 같은 분노가 여호야김도 있는 거예요. 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리니까 아내가 “목장을 안 간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떠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내는 또 부부목장에서 어떤 나눔을 하냐 하면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복수와 응징이다. 어떻게 하면 복수하냐! 그리고 이제 복수는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댄 생각하지 마시라. 다들 내가 죽어서 복수하겠다.... 연약한 사람의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다툰 후에 “여자목장 부부목장 다 안 가!” 그랬더니만 그냥 막내딸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목장 가는 거’라는 말에 그래도 이제 곤고하니까 목장에 참석을 했어요. 여자목장에서 이 사건을 나눴는데 “친정엄마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이 너도나도 다 “남편에게 맞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에 갑자기 수치스러움이 사라지고 목장에 갈 힘이 생겼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주먹이 가까워요. 그렇게 한 번 맞았다고 한 번 이혼했다고 그게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바벨론처럼 훈련받아가지고 온 식구들을 영육의 자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엄청난 약재료를 주신 거예요. 알아요? “어머 나도 간증할 거리 생겼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오! 때렸네. 외도했네. 오! 목장 가서 갑자기 내가 이랬는데도 내가 랄랄랄” 이러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이거 구속사죠? 그죠? 세속사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어린애인 거예요. 엄청난 구속사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 맺어요. “즐거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얘기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돌아서서 늘 배반해요. 하나님은 오늘요, 너무 참다가 말씀대로 물리치시겠

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네가 원하는 그 애굽 좀 내려놔라. 구해주지 못한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데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 빌어주신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새찬송가 290장 (통일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후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2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3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기도 제목 우리가 늘 이렇게 돌아서서 배반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이라도 회개하여 반드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말씀에 찔림받아 분노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다 이제 목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어떤 다른 결론이 없어요. 목장은 좋아서 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피로 값 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우리 목장은 나한테 잘해 줘서 나가고 못해 줘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로 값 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 말에 분노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이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 훈련을 위한 이 힘든 바벨론에 순종하게 해 달라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어떤 경우도 창조 질서를 막는 악법은 제정되지 않게 해 달라고. 북한의 무릎 꿇지 않는 이 7천 명,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서 속히 이 북한과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들의 신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힌 전에도 후에도 없을 요시야, 아버지, 그 천인공노할 그 죄를 보았어요.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아버지 하나님, 또 악을 행하는 걸 보았어요. 그들을 악으로 이끈 므낫세를 보면서 성경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구속사의 책임인지,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옳고 그름으로 집에서,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거 정죄하느라고 다 분해서 여호야김처럼 그렇게 성경을 찢어 불에 태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만큼 이렇게 잡아 죽이고 찢고 하는 우리의 이 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어요. 이제 그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하는 이 얘기가 그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한 이 선물 때문에 내가 창조주하고 말을 섞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런

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말을 섞는 관계가 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동기가 되어 준 우리 식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인생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이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어지러울수록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 가족을 살피며 회사를 살피며 교회를 살필 때 나라가 저절로 안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뭔가 다른 걸 좀 보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모든 한국과 세계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의 평범성이 너무 무서운데 주님, 창조 질서를 막는 악법이 제정되면 안 돼요. 절대로 제정되면 안 돼요!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안 들린다는 소리 좀 그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신앙고백으로 드린 우리들의 헌금을 주여 받아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도록 저희들의 회사와 사업과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아버지 하나님, 관계와 물질과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목장에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주여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힘들어서 왔는데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게 고쳐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바벨론에 순종하겠습니다!”

2026.09.06.(주일) 열왕기하 23:36-24:7 「즐거하지 아니하시니라」 김양재목사님
인생에서 제일 급했던 날,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다시 애굽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즐거하지 아니하시니라”는 이유는 첫째,

1. 우리는 돌아서서 배반하기 때문입니다(23장36절-24장1절)

Q.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렸지만, 형편이 풀린 뒤 잊거나 미루고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Q. 요즘 내가 죽어라고 말씀보다 더 믿고 붙드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알코올 중독? 동성애? 마약?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Q. 애굽을 붙들면서 예배와 큐티와 기도에서 어떻게 멀어지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말씀대로’ 물리치십니다(심판)(2-4절)

Q. 최근 나를 가장 찌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해 준 사람을 미워하고 피했습니까?

Q.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휴, 됐어 됐어~ 다 그런 거지 뭐~” 하는 관찮다로 여기며 미루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3. 내가 원하던 애굽은 끝내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5-7절)

Q.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Q. 내가 믿던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애굽을 찾아서 삼만리하고 있습니까?

Q.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내가 아직 숨기고(붙들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Q. 여러분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바벨론에 순종하겠습니다!”